

이동통치와 불안계급의 공간전략*

Governmentality and the precariat's spatial strategies

신혜란**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불안정성과 개인들의 대응전략이 상호 구성하는 것을 공간과 이동 중심으로 보는 이론적 탐색이다. 불안계급 논의는 구조와 개인의 문제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특징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이동을 주어진 조건으로 전제하여 이동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의 문제, 불안정성과 공간전략의 상호작용에는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을 주장한다. 첫째, 불안사회에서 이동을 통한 통치와 그에 대한 개인들의 공간적 대응이 상호구성하며 순환한다. 자본과 인간의 이동은 통치술이자 생존전략이며, 동원이자 자발이고, 동시에 그 복잡한 결합이다. 이동 통치는 권력의 작동인 동시에 국가나 사회가 세계적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공간전략이다. 둘째, 불안정화되는 사회구조와 그 전환 속에 놓인 사회구성원은 공간전략을 통해 항해하며 대응한다. 초국적 이주자의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반복적 이동과 장소 만들기 가 그러한 전략의 일환이며, 그 전략과 실천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주요어: 이동, 통치, 불안계급, 공간전략, 불안정성, 항해

1. 서론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불안정성과 개인들의 대응전략이 상호 구성하는 것을 공간과 이동 중심으로 보는 이론적 탐색이다. 불안

* 이 연구는 연암문화재단의 해외연구교수 지원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국토문제연구소, 여성연구소(haeranshin@snu.ac.kr)

정성(precarity), 불안계급(precariat) 논의에 이동/이주자 연구에서 활용되는 ‘이동을 통한 통치(이동통치, governmobility)’, ‘항해(navigation)’ 개념을 결합시킨다. 이 논문에서 불안정성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개인의 삶에서 불안,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뜻한다(Lewis 외, 2015). 불안계급은 안정적 급여생활자(salarariat)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불안정한(precarious) 노동자계급(proletariat)을 의미한다(Standing, 2012). 이동통치란 이동을 통해 통치와 안정이 형성, 재형성되는 것(Baerenholdt, 2013)을 뜻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불안정성 논의 속에서 이동/이주의 메커니즘과 역할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이다. 경제구조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드러나는 불안정성의 증가와 불안계급의 출현은 사회과학 전반을 비롯해 언론, 정책분야, 대중적 담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불안계급, 불안정성을 공간, 특히 이동/이주에 관련하여 논의한 연구는 드물다. 불안정성과 공간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물과 인간의 고정된 위치로서의 공간이 아닌 이동과 관련된 공간은 불안사회, 불안계급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 연구는 구조와 개인의 문제를 관통하는 불안정성 논의를 공간연구에서 발전시키자는 제안이다. 불안계급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초국적 이주자의 사례를 통해 다음의 질문을 던지며 논의하고자 한다.

이동은 통치를 위한 동원인가, 아니면 자발적인 삶의 선택인가? 불안계급으로서 이주자는 불안정성에 어떠한 공간전략으로 대응하는가?

이 연구는 불안사회에서 이동을 통한 통치와 그에 대한 개인들의 공간적 대응이 상호작용함을 주장한다. 기존의 불안정성 관련 논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과 불안계급화되는 개인의 삶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공간과 이동/이주의 관계적 역동성을 소홀히 다룸으로써 사회 불안정성이 불안계급의 공간실천과 상호작용하는 순환관계를 놓치고 있다. 이 연구는 자본과 인간의 이동이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근본원인인 동시에 국가나 개인이 그 불안

정성을 극복하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본다. 이동을 통한 통치는 국가 및 사회의 전략이며, 초국적 이주자의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반복적 이동과 장소 만들기는 개인들의 공간실천이다. 이러한 전략과 실천들이 상호작용하여 서로를 강화시킨다. 이동은 통치술인 동시에 생존전략이며, 동원이자 자발이고, 또한 그 둘의 복잡한 결합이다.

위의 주장을 위해 이 논문의 2절부터 6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불안정성, 불안계급 논의를 검토하고 공간과 이동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비판한다. 그를 극복하기 위하여 3절에서 불안계급 논의에 이주자 연구를 결합시켜 이동통치와 개인들의 항해술인 공간전략을 순환관계로 볼 것을 제안한다. 4절에서는 이동통치(governmobility) 개념을 중심으로, 통치의 한 부분이 되는 이동과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나는 이동에 대해 논의한다. 통치를 위해 구체적인 이동을 동원하는 국가, 그 통치논리를 내면화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사회구성원 모두 공간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5절은 불안계급인 이주자가 불안정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반복이동, 장소 만들기 등의 공간전략을 쓰는 것을 불안정 사회에서 항해(navigation) 개념을 통해 고찰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6절은 불안계급의 공간전략이 그들의 역량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불안정성 논의의 학문적, 실천적 함의와 딜레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2. 이동과 불안정성, 불안계급

불안정성(precariety)과 불안계급(precariat) 개념이 대표하는 사회변화는 최근 사회과학자들, 정책전문가들,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불안정성 논의의 기존 문헌들(대표적으로 Standing, 2016; Banki, 2013)은 세계 금융위기, 값싼 노동인구 유입, 산업재구조화로 인한 생산방식 유연화, 라이프스타일 유연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이광일, 2013), 교육과 정부 서

비스의 상품화 등으로 인해 후기자본주의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 경제적 조건(Lewis 외, 2015)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 중 세계적인 노동 이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그 변화의 핵심에 있다. 자본의 이동이 경제의 세계화 및 고용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져왔다면, 이에 더해 이주 정책의 변화, 비공식적 이주통로의 발전은 국경을 넘는 노동력 이동을 증가시켰다. 노동력 이동은 다시 사회 불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그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더욱 불안계급화된다.

불안정성(precariety) 개념은 후기자본주의 사회 생활세계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대두되는 상황을 포괄한다. 구조와 개인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일찍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Habermas, 1984; 1987)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시장과 같은 시스템의 도구적 합리성이 생활세계의 소통적 합리성을 잠식시켜 결국 시스템에 필요한 가치 생산이 생활세계에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카스텔의 네트워크 이론(Castells, 1996; 1997; 1998)은 네트워크 사회의 상호 의존성과 연결성이 강해지는 가운데 정체성, 가치, 자기결심, 가정, 기존의 조직 등은 약해지므로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벡의 위험사회론(Beck, 1992)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의 각종 위험에 맞닥뜨리는 현대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위험인식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고 보았다.

위의 개념들에 비해 불안계급 논의는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여기지 않던 주체의 조건, 감정적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Munck, 2013). 가장 중심이 되는 불안정성의 배경은 고용안정 보장이 없는 노동시장 조건이다(Coe, 2012). 대량생산 방식의 포디즘 시대에 사람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표준노동시간에 일을 하고 일정한 나이에 퇴직을 했다. 이른바 포스트 포디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 세계 전반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며 서비스직 비중이 늘어나고 변화가 심한 금융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불안정성이 증가되었다.¹⁾ 다양한 시장상황에 맞추기 위해 노동시장은 유연해 졌다. 계약직,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

났고 노동시간과 장소가 다양해졌으며 퇴직시기도 다양해졌다. 그 결과로 사회구성원이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안정성이 사라지고 다른 직장, 국가로 옮기는 것이 예전보다 자유로워졌다. 혹은 옮겨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었다. 단기 프로젝트 중심, 줄어드는 복지, 가족생활의 불안정이 높아지면서 빚을 지고 감정적인 괴로움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Neilson and Rossiter, 2005). 이러한 점에서 불안정성 논의는 현대사회의 사회변동을 일상의 문제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이 사회문제가 되고 불안계급을 가리켜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기 프로젝트, 계약제 고용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치적 경향 또한 예측하기 힘들고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Standing, 2012). 복잡한 계약 때문에 고용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때 불안은 커진다. 스탠딩은 불안정한 사회에서 개인이 불안, 소외, 아노미, 분노(4As: anxiety, alienation, anomie, anger) 감정을 가지게 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학자들(Butler, 2006; Waite, 2009; Woon, 2014) 역시 현대사회의 구조 및 생활양식과 감정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감정, 감성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이주자 연구와 지정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주자 연구에서 향수 정서의 변화, 적응과정에서 겪는 내면 갈등, 정체성의 혼란(EI, 2009; Conradson and McKay, 2007)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지정학에서 테러리즘, 반 이슬람 정서(Moisi, 2009) 등과 같은 논의도 감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불안계급을 이루는 주된 집단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기 힘든 청년들, 전통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조건을 받아들여 온 여성들, 노인들, 장애인들, 복지수혜자들, 범죄자들, 이주자들 등이다(Standing, 2016). 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불안정성의 대표 집단으로 청년들, 노인

1) 반면 불안정성 논의에 대해 인간사회와 노동시장은 항상 불안정했고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에서 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디즘이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Neilson and Rossiter, 2008).

들이 언급된다. 이 특집호의 박인권(2017)의 논문에서 얘기하듯이 소비와 재생산에서 배제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삶의 불안정성은 커진다. 하지만 스탠딩은 누가 불안계급인가라는 물음에 불안계급은 특별한 희생자나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 즉 ‘우리 다수’라고 주장한다. 불안계급(Jørgensen, 2016) 개념의 핵심은 특정한 집단이 아닌 사회구성원 다수의 불안계급화(precariatization) 경향이다. 불안계급화란 특정 계급, 연령, 젠더 집단 등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의 다수가 현대사회의 생산과 소비 방식, 노동시장 구조, 삶의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높은 불안정성을 삶의 일부로 갖게 되는 경향성을 뜻한다. 불안계급이라는 개념은 개인들의 조건이 아니라 개인들의 물질적, 심리적 안녕이 불안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방식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현대사회의 다수 개인들이 불안계급이 된다는 것이다.

불안사회 특징 중 하나는 시간과 공간이 조직되는 방식의 변화이다. 사람들이 시공간을 활용, 조직, 구성, 관리, 조율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그들이 사회와 삶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달라진다는 것이다(Standing, 2012).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는데 후기자본주의에 들어서면서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고(Giddens, 1991) 탈 표준화된다. 노동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기술의존도가 커지면서 시공간의 다양한 경계가 허물어졌다. 컴퓨터 시스템은 노동, 놀이, 사교, 가족생활 관리 등이 한곳에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일과 놀이의 시공간 구분은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기기들의 사용을 통해 무너진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업무 협력이 많아져 과거와 같이 근무시간을 지키기는 힘들어졌다.

공간의 탈 표준화로 한 성격으로 규정할 수 없는 공간과 장소가 늘어나는 것도 후기자본주의 사회 특징이다. 여기에 크게 기여한 것은 통신 기술의 발달이다.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체험을 교류하여 장소로서의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오세일·조재현, 2016). 다양한 장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현상도 증가했다(Madanipour, 2017). 먼저 온 사람이 자리를 맡는

핫데스킹(hot-desking)과 몇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 대여 사무실, 회의실이 증가했다. 생활비가 싸고 경치가 좋은 곳에서 몇 주에서 몇 달, 몇 년까지 체류하는 협업공간(co-working space)(Gandini, 2015)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커피숍에서 유연한 형식으로 일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확대되었다. 국제적인 계약관계가 많아져 화상회의, 출장, 답사, 단기 체류 등도 많아져서 정주 개념도 흔들리게 되었다.

한국 사회 맥락의 불안사회 논의(곽노완, 2013; 이진경, 2012)는 비정규직,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세계적 불안정성,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표적 사례이다(Standing, 2016). 한국 전체 노동인구의 32.3%가 비정규직으로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Kim, 2017).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절감, 경영 효율화 등을 하려는 기업들은 평생직장 개념이 강했던 과거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보다는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을 새롭게 고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금 정규직인 세대가 퇴직을 하고 나면 비정규직이 더욱 대세가 되어 그 변화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불안사회를 보는 공간 관련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특집호의 다른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불안계급은 주거불안계급(박미선, 2017)으로, 도시빈곤층 주거지는 불안 공간(이영아, 2017)으로 재개념화될 수 있다. 이는 불안정성의 증가가 야기하는 현상, 특히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양상에서 공간이 핵심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3. 불안계급 논의에서 공간, 이동 이해의 한계

이 연구는 불안정성 논의에 이주자 연구 접근을 결합하여 구조와 개인의 상호구성적 순환관계를 볼 것을 제안한다. 불안정성, 불안계급에 관한 기존 논의는 후기자본주의 현대사회의 변화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의 핵심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동,

이주에 관한 접근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동, 특히 노동력의 국제이주를 불안정성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그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 불안계급이 영향을 받는다는 단순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한 구조주의적 접근은 이동의 메커니즘과 이동하는 개인 혹은 이동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주체의 역동성을 놓치고 있다. 반면 이주자들의 경험 사례에 집중한 이주자 연구에서는 그러한 주체의 전략실천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불안계급 논의에 이주자들의 공간전략을 보여주는 이주자 연구, 권력과 이동의 관계를 밝히는 이동 연구의 개념을 결합시켜 다음과 같이 논의를 발전시킨다.

첫째, 이 연구는 배런홀드(Bærenholdt, 2013)의 이동통치(governmobility) 개념이 뜻하듯이 이동의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의 중요성을 논한다. 불안계급 논의의 한계는 국가를 역시 세계 경제 동향의 일부 또는 주어진 배경으로만 상정한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 또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주체라는 것에 주목한다. 기존문헌은 또한 자본의 이동에 집중하여 국제적 이주자를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겼다. 국가와 개인이 불안사회에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주자는 생존전략으로서 이동을 실천하여 선주민(흔히 원주민natives) 및 다른 이주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어 새로운 이동을 촉발한다.

둘째, 이 연구는 구조와 개인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불안정성의 증가 자체뿐만 아니라 주체들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초국적 이주자의 사례에서 불안계급이 불안정한 사회에 대응하는 항해술(Vigh, 2009)이 잘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 국가의 이주 정책을 비롯한 사회의 이동, 개인의 이주 실천은 동원과 자발이 얽혀있는 산물이며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원인인 동시에 국가와 개인의 전략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상호작용은 불안정성과 주체의 상호작용, 다른 주체들(국가와 개인)의 대응 간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이주자 연구에서 논한 이주자들의

대응전략과 이주/이동 연구에서 국가가 이동을 통치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를 통해 불안사회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주자들의 반복적 이동, 다양한 장소 만들기과 같은 공간적 실천에 주목한다.

4. 이동-동원과 자발의 결합, 불안정의 원인이면서 전략

이 절은 이동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관한 이동 연구의 논의를 불안사회 개념과 함께 논의한다. 특히, ‘이동을 통한 통치(governmobility)’(Bærenholdt, 2013) 개념과 불안사회의 이주자 사례를 통해 ‘국가가 어떻게 이동을 통하여 통치하는가’, ‘개인이 어떻게 이동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이동을 통한 통치, 특히 국가가 이동/이주를 ‘통하여’ 통치(Sheller, 2016; Jensen, 2011)하는 것이다.

근래 들어 이동연구는 이동의 다양한 역학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분야로 떠올랐다. 일어난 이동량에 기초해 현재와 미래의 수요, 공급에 초점을 두던 때와 달리, 이동, 이주가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동연구는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이동연구는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자본, 시설, 정책 아이디어, 지식의 이동 등을 다룬다. 국가의 전통적인 주요 통치전략인 인구조절에서 이주의 중요성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 인구문제에서 출산율과 사망률에 비해 이주는 주요 사안이 아니었다. 가족, 직장, 비자 등으로 이주가 제한되어 전체 인구형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자본 이동의 증가로 노동 수요가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동을 가능케 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 또한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하였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초국적 이주자 수도 급증했다. 2016년 말 기준 한국 체류 이주자는 2,049,441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최근 5년간 매

년 9.3% 증가한 수치다(법무부, 체류외국인 현황).²⁾

최근 몇 년간 이동 관련 분야에서 이동이라는 실천과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Jensen, 2011; Sheller and Urry, 2006; Sheller, 2016). 이동이 발생하는 구조의 핵심에 지정학적 권력관계, 인종/민족 간 권력, 국가의 통치권력 등 권력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주의 원인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거시경제적인 접근인 세계체제 이론(World system theory)을 제외한 나머지 접근(신고전경제학적 접근, 가족, 네트워크)들은 이주자 개인의 동기부여와 국가의 이주정책에서 이주의 원인을 찾는 것이 대세였다(Massey 외, 1994).

이동통치(governmobility)는 초국적 이주를 권력-이동 관계에 비추어 발전시킨 주목할 만한 개념이다. 이동통치는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Foucault, 1978)을 발전시킨 개념이다. 물리적, 제도적 강제를 통한 권력이 아니라 도처에 있는 권력, 관계적이며 이동하는 끊임없이 형성 중인 권력이라는 권력 개념을 통해 푸코는 근대국가의 성립이 합리화를 통해 영토를 규정하고 장악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동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통하여 통치한다는 것은 이동에 내재되어있는 권력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며 이동이 통치 자체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Bærenholdt, 2013: 27~30). 이동은 권위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권위가 되는 것이다(Cresswell, 2006, 2014).

이동통치의 제도적 형태인 이주정책은 이동을 동원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통해 규범의 형성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지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수의 국가들은 노동인구가 충분치 않을 때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시킨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주노동자, 특히 선호되는 유형인 고학력 기술직 이주노동자에게 이주기회를 주고(Qin, 2015), 중소기업 노동력 부족으로 중국 조선족 유입을 장려하며, 국제 경쟁에서 한국대학의

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2017년 12월 11일 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학생과 교수의 유입을 장려하고, 결혼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의 결혼 이주(Lu 외, 2016: 이병렬·김희자, 2016)를 장려한다. 반면에 이주자, 난민 유입을 통제하거나 성장을 규제하는 정책 등을 통해 이동을 규제하기도 한다. 보수적인 정권하에서는 선호하는 인구 유형과 그렇지 않은 인구 유형을 차별하는 정책이 더욱 선명했다.

이주정책을 통한 이동통치의 사례는 선명한 통치의도 또는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돌봄 복지를 개인이 이동과 이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함의를 갖는다. 근대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들이 강력한 가족 이데올로기를 통해 강제적으로 또는 강제된 자발적 노력으로 복지기능을 떠맡아 왔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들어서 복지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치는 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국가의 위기를 해소하는 공간전략으로 여전히 중요하다. 근대국가의 복지 기능이 강했던 서구 국가들에서도 후기 자본주의 시기 들어 재정위기와 정당성 위기(Habermas, 1975)가 발생하면서 이동을 통한 통치의 필요성은 증가하였다.

이동통치의 통치의도와 효과의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통치의 혼용적인 효과이다. 푸코가 본 통치술은 숫자(통계와 계량), 인구, 지도와 같이 근대사회에서 정당화를 이루는 상식을 만들어내는 실천이었다. 통치기술은 “품행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가능한 행동반경을 구조화”(Foucault, 1982: 221)한다(김동완·신혜란, 2016). 따라서 통치술로서의 이동은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다(Bærenholdt, 2013: 20). 사회의 상식과 표준이 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그것을 통치술로 하여 근대국가가 유지되는 것이다. 혼용적인 이동 또한 단지 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규범, 상식, 표준(conduit, conduct,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김동완·신혜란, 2016), 이데올로기, 젠더 역할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Sheller, 2016). 자가용을 가지는 것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일 때,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환경 윤리적으로 보일 때 대중교통을 늘이는 것이 상식이다. 이 주가 고향에 남겨진 부모를 등지는 행위로 비춰지는지 아니면 자기 꿈을 실현하는 당연한 행위로 여겨지는지는 해당 사회의 상식에 달려 있다.

국가나 사회의 이동통치 논리를 개인이 내면화하기 때문에 도처에 있는 권력, 관계로서의 권력, 통치의도가 일상을 통한 실천으로 나타난다. 개인이 통치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것은 특정 사회에서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를 배우는 과정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공간과 장소로 이동하고 공간과 장소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진취적인 자세로 여겨지는 상식 형성이 중요한 통치술이 되는(Baerenholdt, 2013) 것이다. 세계화 속 신자유주의적 경쟁, 네트워크 강화 속에 개인들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서는 적극성을 가지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회표준이 된다. 다양한 경험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관광과 단기 이주도 삶의 낭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투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동의 논리는 개인에게 내면화된다.

그렇다면 불안사회에서 불안계급은 단지 국가와 사회의 이동통치 권력의 실천에 통치를 받고 이동의 논리를 자유의지 없이 내면화하는 존재인가? 구조와 행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은 사회과학의 오랜 논쟁적 사안이다. 이 연구는 에이전트의 상대적 자율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자율성에 대항품행의 전략으로 활용되는 실천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불안정한 고용관계로 인하여 시공간에서 일상의 실천을 이루는 방식이 달라진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유망한 직업을 위해 다양한 능력을 개발해야하는 개인들에게는 저항할 시간도 모자란다(Standing,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자율성이나 불안정한 상태를 헤쳐 나가는 개인적, 집단적 반응과 전략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Guo et al., 2011). 예컨대, 다른 연구들(Waite, 2009; Neilson and Rossiter, 2008)은 월 스트리트 점령 운동이나 런던증권거래소 점거운동의 예처럼 불안계급의 정치적 저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이동통치(governmobility)에 대한 비판으로 주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취하는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도 주체 중 하나로써 이동을 통해서 통치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 외에 국가 주도의 장소만들기도 공간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정 기반시설과 기능을 특정장소에 위치 짓고 개발하는 것에 국가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 혁신도시, 다양한 종류의 도시개발, 재개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개인의 공간적 전략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푸코의 권력이론에서 보자면 통치기술과 자아의 기술은 관계적 인식론으로 통합 가능하다(Lemke, 2002: 49). 비판, 저항이 통치성 형성과정에 이미 “내재되어 있으며, 필수적이기까지 하다”(Cadman, 2010: 540). 즉, 대항품행, 대항규범은 이미 권력관계의 형성 과정에 내재한다. 저항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가령 가족에게 복지의 짐을 지우기 위해 가족형성을 상식으로 만드는 국가에게 저항하여 가족형성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가족을 복지의 도구가 아니라 연대와 사랑, 대안적 가치의 단위로 만들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통치자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란 구체적인 삶의 도처에 있으므로 그것에 대항하는 것은 그 논리를 뒤집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유하는 것이다.

이동통치에서도 푸코가 주목한 질문할 권리(Cadman, 2010)를 생각해 보자면 무엇이 질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하다. 이동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상식을 회의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기술이 대항품행으로 나아가게 한다. 따라서 느린 삶을 지향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반세계화 시위(Death, 2011)에서처럼] 등은 하나의 대항품행이다. 다른 방식의 대항품행은, 이동을 하되 불안계급의 뒷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이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세계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바람직한 시대인간상으로 제시된 표준에 의거하

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 이동, 즉 유학이나 대도시로 이동에 그친다면 이 생존전략은 다소 소극적인 적응에 그칠 것이다. 고학력 이주자 사례에서 반복 이주가 나타나는 것이 한 예이다(Boncea, 2015; Qin, 2015; Wang 외, 2017). 그러나 이동의 동기나 이동의 결과로 자신과 공동체의 역량, 즉 선택할 자유를 더 넓힌다면 대항품행으로 볼 수 있다. 단지 이 대항품행이 권력관계 형성에 이미 내재하는 것과 같이 그 대항품행이 권력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아 긴장은 늘 존재한다. 불안사회의 이동에서 개인은 이동을 통해 통치 받지만 동시에 이동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불안계급 항해 속 공간전략-반복이동과 장소 만들기

이 절은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불안계급의 ‘항해(navigation)’³⁾ 속에 나타나는 공간전략을 살펴본다. 항해는 바다에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움직임을 뜻하는데, 육지에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움직임 속에서 움직임’을 뜻한다(Vigh, 2009: 420). 항해(navigation) 개념은 좌표 자체가 흔들리는 조건에서 개인들이 탈출을 계획하거나 좀 더 나은 위치로 가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사회와 그 속에서 움직이는 이주자 들 모두가 연구대상으로 두는 항해 개념은(Vigh, 2009) 불안정성, 불안계급의 종합적인 논의에 유용하다. 사회과학연구가 사회적 변화 또는 그 사회 속 에이전트의 변화, 둘 중 한 측면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항해 개념은 그 두 측면의 상호작용을 보는 데 도움을 준다.

항해 개념뿐 아니라 회복탄력성(resili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적응(adaptation)과 같은 개념들 역시 미래를 기늠하기 힘든 불안정한 사회에

3) 내비게이션은 위치정보, 방향 탐색이란 뜻이 강하고 자동차 자동탐색시스템으로 익숙한 용어이지만, 이 연구에서 바다를 연상시키는 ‘항해’로 이름 짓는 이유는 환경도 움직이는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남는 방식에 관한 논의 속에서 등장한 개념들이다. 이 개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안전망, 예측이 어려운 사회에서 주체가 생존, 유지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실천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개인, 집단과 같은 인간주체의 생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도시, 국가와 같은 사회단위 주체의 생존도 포함한다. 이 개념들은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최대한 주체의 기회구조를 넓히고 생존전략을 탐색하는 적극성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예를 들어 불안정성 자체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외면하면서 생존에 집중하는 소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타협적 접근이 광범위하게 환영 받는 이유가 바로 고용조건 유연화, 파편화를 비롯한 불안정성 증가 현상에 있다. 노동이주(the movement of labour)는 노동운동(labour movement)과 같은 기존의 계급운동, 사회운동의 기반을 바꾸었다(Schierup 외, 2015). 그러한 집단적 저항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조건과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극복과 저항의 대상이 ‘세계화’와 같이 거대하거나 불확실하고 막연해졌다. 위기가 닥쳤을 때 상처받아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장기적으로 생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굳이 동화하지는 않지만 적응하는 자세, 망망대해에서 항해 할 수 있는 항해술과 같은 개념이 등장한 이유이다. 특히 적극적 불안계급인 이주자의 삶에서는 이런 전략이 두드러진다.

불안계급은 이 불안정성에 고통 받는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불안정성을 새로운 기회로 여겨 전략을 세운다. 불안, 화, 혼돈 속에 놓인 무기력한 불안계급의 모습을 보이거나 불안사회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는 적극적 모습을 보인다. 이 연구는 초국적 이주자에서 잘 나타나는 후자의 모습, 즉 적응력, 유연성, 탄력성을 가지고 생존방식을 모색하는 모습에 집중한다. 이 적극성은 이주자의 불리한 위치, 즉 그 존재상 처음부터 가지게 되는 불안정성의 다른 면이다. 예를 들어, 불안사회에서 실업 후 재취업되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은 것에 대해 스탠딩

(Standing, 2016)은 여성들이 이미 불안계급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젠더 역할의 제약 때문에 여성들은 비정규직 고용 조건을 마다하지 않거나 일부러 택한다는 것이다.

항해 과정에서 공간은 전략 자체이거나 전략의 방식이다. 공간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전략이고, 공간을 통해 이동하고 장소를 변화시키는 자유를 실현하는 것 역시 전략의 주요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가 이동(공간 사이의 움직임)과 공간을 통해서 통치하듯이 사회구성원들은 이동과 공간을 통해서 적응, 생존하고 저항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동과 공간이 통치 자체, 전략 자체가 된다. 초국적 이주자들의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공간 전략은 1) 반복된 이주 2) 장소 만들기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공간전략은 반복적 이동/이주(Triandafyllidou, 2013)이다. 계절농업을 위한 계절 이주자처럼(Reid-Musoon, 2014) 이주자들이 반복적으로 두 장소를 왔다 갔다 하거나 다양한 장소로 연거푸 옮기는 것이다. 전통적인 이주연구는 이주자들이 목표를 달성한 후(주로 목돈, 직장 마련) 귀국하거나 가족들을 자기가 이주한 곳으로 데려 온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반복적인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돌봄 노동을 비롯한 이주노동 분야에서 단기간으로 일하며 초국적 이주자들이 국제적으로 이동을 반복하는(Guo et al., 2011) 것이다. 반복이동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통신기술의 발전과 이동/이주의 공식, 비공식 통로의 발전이다. 사람들이 기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와 장벽을 극복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갖춰졌다.

이 연구는 이동에 이동/이주의 중독성이 결과적으로 따라온다고 주장한다. 이동, 이주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서가 아니라 다른 곳의 기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도시뿐 아니라 농촌으로 가는 등(McAreevey, 2012) 새로운 길을 생각하고 시도해 보는 것이 삶의 방식,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반복된 이동의 원인과 함의는 정착지에서 계속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삶의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불안사회의 다수의 불안계급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고용안

정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지만 그것이 삶의 형태로 자리 잡은 이상 차라리 고용안정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독적인 반복 이동/이주가 개인의 역량을 넓혀주는지, 아니면 불안정성만 높이는 소모적인 결과인지는 딜레마이다. 불안정성 학자들은 그것이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요구하는지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업기회를 알아보고 이력서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면접을 보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로 옮겨서 정착하는 것에는 상당한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스탠딩(Standing, 2016)의 지적대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다른 장소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결국 임금 없이 개인의 시간과 노동을 쏟는 일이다. 하지만 이동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여 개인 역량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심지어 떠돌이 이주를 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주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사례들이 많다.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경험을 통해 사회현상에 눈을 뜨게 되고 정의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Kim and Shin, forthcoming)가 대표적이다. 한국이 포용적인 사회가 되도록 하는 이런 활동은 다음에 설명하는 장소 만들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공간전략은 이주자 밀집지역[이 연구에서 엔클레이브(enclave)와 동의어로 쓴다. Barry and Miller, 2005 참고]과 같은 장소 만들기 실천이다.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공간실천이나 각종 일시적 공간 마련도 포함한다. 불안정성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가져오는 정체성 위기는 초국적 이주자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문제이다. 고향과 집이 가지는 기억, 의미, 가치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공간은 먹기, 살기, 놀기 등의 일상실천을 통해 정체성이 공고화되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정서를 유지하며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Katila and Wahlbeck, 2012; Wang, 2012), 종교공간(Garbin, 2014), 문화공간 등을 만드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Phillips, 2015; Schiller and Çağlar, 2013)이다.

안정된 밀집지역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집회, 문화활동, 점유

운동도 장소 만들기의 일환이다. 이 특별호의 박미선(2017)이 제시하듯이 많은 청년들이 주거불안계급 범주에 들어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장소를 마련하기 힘들게 되었고 이주자들의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소통기술의 발전 때문에 일시적 장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고 문화적으로 세련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초국적 삶의 영구적 일시성(permanent temporariness)이 가능해져서(Collins, 2012) 단기 이주가 증가하였다. 장소 만들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도 멤버십이 강하게 있다기보다는 프로젝트 위주의 멤버십인 경우가 많다. 불안사회에서 불안계급의 대표적인 공간활동으로 여겨지는 점유 운동(occupy movement)은 일시적 장소만들기의 특성이 극대화된 경우이다. 차도를 점거하거나 주거권을 주장하며 빈 집을 점유하는 스퀴팅(squatting)(Vasudevan, 2015), 월 스트리트 점령운동이나 런던 학생들의 점유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다. 주로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몇 달에서 몇 년까지 물리적으로 존재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식이다.

위의 두 공간전략은 이주자의 생존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일한 선상의 계급적 실천은 아니다. 반복이동/이주는 개인이 선택하는 전략인데 비해, 장소 만들기는 집단실천이기 때문이다. 실천 자체로 보면 반복이동은 소극적인 대응인 반면, 장소 만들기는 계급적 실천으로서 저항의 의미가 더 크다. 이주자의 장소 만들기는 한국 구로, 대림 지역의 조선족 이주자 밀집지역처럼 저항 공간으로서 정체성과 계급특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드문 특성인 이러한 가시성은 사회문제화에 기여하고 단결과 연대, 협력, 투쟁도 쉽게 한다. 하지만 장소 만들기의 집단성도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라 마침 한곳에 모이게 된 이주자들의 실천이다. 그렇게 보자면 반복이동도 결과적으로 저항의 의미를 나타낸다. 편리에 따라 필요한 정도만 노동을 소비하려는 자본의 욕구에 오히려 더 나아가 그 전에 개인들이 그만 두고 옮겨버리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공식 이동은 이동통치에 저항하는 실천이다.

두 공간전략은 공통적으로 종종 여의치 않은 조건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Bastia, 2014). 비공식성은 비공식 경제를 넘어서서 삶을 조직하는 방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세계도시, 경제적 선진사회에서도 오히려 증가했다(Roy, 2005; Roy and AlSayyad, 2004). 미등록 이주자를 포함한 이주자(Huschke, 2014)들이 도착지에서 원만한 정착을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노동시장, 주택시장, 송금체제에 기댄 결과, 공식-비공식, 합법-불법의 경계는 흐려진다(Chauvin and Garcés-Mascreñas, 2012). 이런 사회적 협상은 단지 이주자의 노력과 실천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선주민의 개입이 필수적이다(Schapendonk, 2017; Shin and Park, 2017).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의 참여자들도 이해관계 또는 이주자와 관계에 따라 비공식성의 유지, 발전에 결과적으로 이바지하게 된다(Rogaly, 2009; Shin and Park, 2017).

불안정성을 향해하는 다양한 전략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안겨준다. 그 항해술은 불안정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공간전략은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하면서 작은 전략전술을 짜는 것으로 위기를 단기간만 극복하는 것일 수 있다. 이동을 통한 통치에 순응한 형태이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표류와도 같다. 하지만 불안계급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모습에 비교하면 적극적일 수 있다. 가령 취업의사를 잃고 불안감에 괴로워하며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시간을 때우는 모습보다 항해는 더 나은 곳을 모색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게다가 현대사회 변화는 예전처럼 질서 있고 거시적인, 해석 가능한 변화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나오는 소음에 가깝기 때문에(Vigh, 2015)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기 힘든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실천을 가져오기 힘든 조건이 사회구조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6. 결론

불안계급, 불안정성 개념과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안한 이론적인 탐색으로서 이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본의 이동과 이주 노동자의 이동은 현대사회의 불안정성을 강화시킨다. 높은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와 개인은 이동을 통치와 생존의 전략으로 삼는다. 불안정성과 주체들 대응은 상호작용한다. 이주자 개인의 이동/이주 결정은 이동을 통치논리가 내면화된, 강제된 자발성인 동시에 계층상승을 위한 자발성의 결과이다. 특히 불안계급이 불안정성을 향해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하다. 불안정성 기존문헌이 불안(anxiety), 소외, 화와 같은 감정을 중심으로 얘기하였다면, 이 연구는 적극적 불안계급인 초국적 이주자가 새로운 기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동/이주하는 모습과 밀집 지역과 같은 장소를 만드는 실천을 향해의 중심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연구는 학문적으로 국가와 사회, 에이전트가 모두 공간전략의 주체라는 함의를 가진다. 공간적 뻘질(Spatial fix)은 자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도 위기에 빠졌을 때 공간적인 문제해결을 찾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함의는 불안정성과 불안계급의 공간실천이 보여주는 상호구성적 순환관계이다. 국가의 공간전략이 이주자에게 통치의 논리로 작용하였고, 그 논리를 내재화하여 한 이동은 다시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그리고 이 불안과 이동은 점점 발전하기도 한다. 초국적 이주자는 불안계급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불안사회의 불안계급 전반에 대한 함의를 갖는다.

학문적 함의의 복잡성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실천적 함의도 간단하지 않다. 불안정성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다수에게 사회 안전망 없이 불안한 상태를 경험하도록 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많은 이들을 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이 시공간을 이용하여 자

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기도 한다. 국가가 이동을 통치의 전략으로 삼았듯이, 개인이 이동을 생존전략과 적응적 기호(adaptive preference)로 적극 이용하여 적어도 단기적으로 삶의 대안을 마련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구조 속에 자신의 역량을 침해하는 것(Sen, 1999)일 수 있다. 복지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개인이 이동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 주로 착취될 가능성을 찾아 헤매고 극복하는 모습일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연구는 이주자의 사례를 통해 개인이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할 수밖에 없는 절박성을 주장했다. 불안계급이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가고 향해해 나갈 것인가의 모습은 좀 더 구체적인 개인의 상황과 개인의 능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불안계급의 출현이 함의하는 바는 많다. 사회가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정의되는지, 정치적인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회구성원은 어떻게 불안정성에 피해를 당하는 동시에 전략으로 이용하는지, 일-휴식-재충전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불안정한 사회조건이 어떻게 이주자뿐만 아니라 선주민도 정체성 위기로 가져가는지, 우리가 왜 감정과 정서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진다. 불안정한 사회의 특성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불안정성, 불안계급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원고접수일: 2017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4일

최종원고접수일: 2017년 12월 16일

❖ Abstract

Governmentality and the precariat's spatial strategies

Shin, HaeRan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s of governmentality and navigation to the conversation on precarity.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s precarity has on the precariat while considering spatial strategies, mobilities, and interactive responses to precarity. By opening a discussion on the nature of contemporary societies, the study sees how people deemed to be the precariat work within the current social structure. Previous studies have treated mobilities as a given and not paid enough attention to the interactive dynamics of those mobilities on the precariat. Focusing on the governing and survival strategies of transnational migrants as an articulated example of the precariat, this research puts forth two arguments. First, mobilities of capital and population are complicated combinations of governmentalities, survival strategies, mobilization, and voluntary decisions. Governmentality refers to governing through mobilities, but it also constitutes the spatial strategy of the society and the nation state to manage global precarity. Second, migrants navigate the precarious and shifting social structure by developing social strategies including repeated mobilities and place-making.

Keywords: Precarity, precariat, mobilities, governing, governmentality, migrants, navigation

참고문헌

- 곽노완. 2013. 「노동의 재구성고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3호, 94~114쪽.
- 김동완·신혜란. 2016. 「대항품행 그리고 성미산 스타일」. 《경제와 사회》, 제111권, 174~204쪽.
- 박미선. 2017. 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1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7권 4호, 110~140쪽.
- 박인권. 2017. 도시의 사회적 약자 불안정화 과정: 불안계급 이론의 비판과 확장. 《공간과 사회》, 제27권 4호, 36~78쪽.
- 신혜란. 2017. 이동통치와 불안계급의 공간전략. 《공간과 사회》, 제27권 4호, 9~35쪽.
- 오세일·조재현. 2016. 「한국 사회의 삶의 질 저하 현상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제42권, 127~167쪽.
- 이광일. 2013.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 프레카리아트의 형성과 ‘해방의 정치」.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3호, 115~143쪽.
- 이병렬·김희자. 2011.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경제와 사회》, 제90권, 320~362쪽.
- 이영아. 2017. 불안 공간과 도시 빈곤층의 불안한 삶. 《공간과 사회》, 제27권 4호, 79~109쪽.
- 이진경. 2012.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대칭성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제1호, 173~201쪽.
- Bærenholdt, J. O. 2013. “Governmobility: The powers of mobility.” *Mobilities*, Vol. 8, No. 1, pp. 20~34.
- Banki, S. 2013. “Precarity of place: A complement to the growing precariat literature.” *Global Discourse*, Vol. 3(3-4), pp. 450~463.
- Barry, C. R. and P. W. Miller. 2005. “Do enclaves matter in immigrant adjustment?” *City & Community*, Vol. 4, No. 1, pp. 5~35.
- Bastia, T. 2014. “Transnational Migration and Urban Informality: Ethnicity in Buenos Aires’ Informal Settlements.” *Urban Studies*, Vol. 52, No. 10, pp. 1810~1825.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 Boncea, I. 2015. “Brain drain or circular migration: the case of Romanian physicians.”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Vol. 32, pp. 649~656.
- Butler, J. 2006.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Verso.
- Cadman, L. 2010. “How (not) to be governed: Foucault, critique, and the political.”

-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28, No. 3, pp. 539~556.
- Castells, M.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UK: Blackwell.
- _____. 1997. *The power of identity*. Oxford, UK: Blackwell.
- _____. 1998. *End of millenium*. Oxford, UK: Blackwell.
- Chauvin, S. and B. Garcés-Mascareñas. 2012. "Beyond Informal Citizenship: The New Moral Economy of Migrant Illegality."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Vol. 6, No. 3, pp. 241~259.
- Coe, N. M. 2012. "Geographies of production III."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37, No. 2, pp. 271~284.
- Collins, F. L. 2012. "Transnational mobilities and urban spatialities: Notes from the Asia-Pacific."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36, No. 3, pp. 316~335.
- Conradson, D. and D. McKay. 2007. "Translocal subjectivities: Mobility, connection, emotion." *Mobilities*, Vol. 2, pp. 167~174.
- Cresswell, T. 2006. *On the move: Mobility in the modern western world*. Taylor & Francis.
- _____. 2014. "Mobilities III Moving 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38, No. 5, pp. 712~721.
- Death, C. 2011. "Counter-conducts in South Africa: power, government and dissent at the world summit." *Globalizations*, Vol. 8, No. 4, pp. 425~438.
- El, H. 2009. "Constituting citizenship through the emotions: Singaporean transmigrants in Lond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99, pp. 788~804.
- Foucault, M.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one: An Introduction*. Pantheon.
- _____. 1982. "The subject and power." *Critical Inquiry*, Vol. 8, No. 4, pp. 777~795.
- Gandini, A. 2015. "The rise of coworking spaces: A literature review." *ephemera*, Vol. 15, No. 1, pp. 193~205.
- Garbin, D. 2014. "Regrounding the sacred: transnational religion, place making and the politics of diaspora among the Congolese in London and Atlanta." *Global Networks*, Vol. 14, No. 3, pp. 363~382.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o, M., N. W. Chow and L. A. Palinkas. 2011. "Circular migration and life course of female domestic workers in Beijing." *Asian Population Studies*, Vol. 7, No. 1, pp. 51~67.
- Habermas, J. 1975. *Legitimation crisis*. Boston: Beacon.
- _____.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Trans. T. McCarthy. Toronto, Canada: Fitzhenry & Whiteside.
- _____.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Trans. T. McCarthy. Boston: Beacon.

- Huschke, S. 2014. "Fragile Fabric: Illegality Knowledge, Social Capital and Health-seeking of Undocumented Latin American Migrants in Berli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40, No. 12, pp. 2010~2029.
- Jensen, A. 2011. "Mobility, space and power: On the multiplicities of seeing mobility." *Mobilities*, Vol. 6, No. 2, pp. 255~271.
- Jørgensen, M. B. 2016. "Precariat—What it is and isn't—Towards an understanding of what it does." *Critical Sociology*, Vol. 42, No. 7-8, pp. 959~974.
- Katila, S. and Ö. Wahlbeck. 2012. "The Role of (Transnational) Social Capital in the Start-up Processes of Immigrant Businesses: The Case of Chinese and Turkish Restaurant Businesses in Finland."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30, No. 3, pp. 294~309.
- Kim, D. Y. 2017. "Resisting migrant precarity: a critique of human rights advocacy for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Critical Asian Studies*, Vol. 49, No. 1, pp. 1~17.
- Kim, Y. and HR. Shin, forthcoming. "Governed mobilities and the expansion of spatial capability of Vietnamese marriage migrant activist women in South Korea."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 Lemke, T. 2002.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Rethinking Marxism*, Vol. 14, No. 3, pp. 49~64.
- Lewis, H., P. Dwyer, S. Hodkinson, and L. Waite. 2015. "Hyper-precious lives: Migrants, work and forced labour in the Global North."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39, No. 5, pp. 580~600.
- Lu, M. C., J. Zhang, H. L. Chee, and B. S. Yeoh. 2016. "Multiple mobilities and entrepreneurial modalities among Chinese marriage migrants in Malaysia." *Current Sociology*, Vol. 64, No. 3, pp. 411~429.
- Madanipour, A. 2017. "Temporary use of space: Urban processes between flexibility, opportunity and precarity." *Urban Studies*, 0042098017705546.
- Massey, D. S., J. Arango, G. Hugo, A. Kouaouci, A., A. Pellegrino and J. E. Taylor. 1994. "A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y: The North American cas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0, Vol. 4, pp. 699~751.
- McAreavey, R. 2012. "Resistance or resilience? Tracking the pathway of recent arrivals to a 'new'rural destination." *Sociologia Ruralis*, Vol. 52, No. 4, pp. 488~507.
- Moisi, D. 2009. *The geopolitics of emotions. How Cultures of Fear, Humiliation and Hope are Reshaping the World*. London: The Bodley Head.
- Munck, R. 2013. "The Precariat: a view from the South." *Third World Quarterly*, Vol. 34, No. 5, pp. 747~762.

- Neilson, B. and N. Rossiter. 2005. "From precarity to precariousness and back again: labour, life and unstable networks." *Fibreculture*, Vol. 5, 022.
- _____. 2008. "Precarity as a political concept, or, Fordism as exception." *Theory, Culture & Society*, Vol. 25, No. 7-8, pp. 51~72.
- Phillips, D. 2015. "Claiming spaces: British Muslim negotiations of urban citizenship in an era of new migrati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 40, No. 1, pp. 62~74.
- Qin, F. 2015. "Global talent, local careers: Circular migration of top Indian engineers and professionals." *Research Policy*, Vol. 44, No. 2, pp. 405~420.
- Reid-Musson, E. 2014. "Historicizing precarity: A labour geography of 'transient' migrant workers in Ontario tobacco." *Geoforum*, Vol. 56, pp. 161~171.
- Rogaly, B. 2009. "Spaces of work and everyday life: labour geographies and the agency of unorganised temporary migrant workers." *Geography Compass*, Vol. 3, No. 6, pp. 1975~1987.
- _____. 2009. "Spaces of work and everyday life: labour geographies and the agency of unorganised temporary migrant workers." *Geography Compass*, Vol. 3, No. 6, pp. 1975~1987.
- Roy, A. 2005. "Urban Informality: Toward An Epistemology of Plann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71, No. 2, pp. 147~158.
- Roy, A. and N. AlSayyad. 2004. *Urban Informality: Transnational Perspectives from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South Asia*. Oxford: Lexington Books.
- Schapendonk, J. 2017. "Navigating the migration industry: Migrants moving through an African-European web of facilitation/control."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DOI: 10.1080/1369183X.2017.1315522
- Schierup, C. U., R. Munck, B. Likic-Brboric and A. Neergaard, A. (Eds.). 2015. *Migration, precarity, and global governanc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labour*. OUP Oxford.
- Schiller, N. G. and A. Çağlar. 2013. "Locating migrant pathways of economic emplacement: Thinking beyond the ethnic lens." *Ethnicities*, Vol. 13, No. 4, pp. 494~514.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nchor Books.
- Sheller, M. and J. Urry. 2006. "The new mobilities paradigm."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38, No. 2, pp. 207~226.
- Sheller, M. 2016. "Uneven mobility futures: A Foucauldian approach." *Mobilities*, Vol. 11, No. 1, pp. 15~31.
- Shin, H. and S. Park. 2017. "The Regime of Urban Informality in Migration: Accommodating Undocumented Chosŏnajok Migrants in their Receiving Community in Seoul, South Korea." *Pacific Affairs*, Vol. 90, No. 3, pp. 459~480.

- Standing, G. 2012. "The precariat: from denizens to citizens?" *Polity*, Vol. 44, No. 4, pp. 588~608.
- _____. 2016.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 Triandafyllidou, A. (Ed.). 2013. *Circular migration between Europe and its neighbourhood: choice or neces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sudevan, A. 2015. "The makeshift city: Towards a global geography of squatting."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39, No. 3, pp. 338~359.
- Vigh, H. 2009. "Motion squared: A second look at the concept of social navigation." *Anthropological Theory*, Vol. 9, No. 4, pp. 419~438.
- Waite, L. 2009. "A place and space for a critical geography of precarity?" *Geography Compass*, Vol. 3, No. 1, pp. 412~433.
- Wang, H., W. Li, and Y. Deng. 2017 "Precarity among highly educated migrants: college graduates in Beijing, China." *Urban Geography*, pp. 1~20.
- Wang, Q. 2012 "Ethnic entrepreneurship studies in geography: a review." *Geography Compass*, Vol. 6, No. 4, pp. 227~240.
- Woon, C. Y. 2014. "Precarious geopolitics and the possibilities of nonviolen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38, No. 5, pp. 654~670.